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포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 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겨울 계절학교 이번 주에도 계속

유치·유초년·중고등·사랑부... 22일엔 학부모 성경학교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주제로 열리는 올해 겨울 계절학교가 지난주 대학부 수련회를 필두로 시작, 이번 주 절정에 이른다.

유치부·유년부·초등부가 21일(월)부터 각각 2일 간의 성경학교를 개최하는 한편 사랑부는 25일(금)에 일일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또 중등부는 24일(목)과 25일(금), 고등부는 21일(월)과 22일(화) 각각 교회당에서 수련회를 개최한다. (관련기사 4면)

학부모 초청 세미나

유아부와 유치부가 주최하는 학부모 초청 세미나가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층 예배

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부모님은 자녀의 거울이예요”를 주제로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성경학교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미나의 내용은 먼저 1부 예배에 이어 2부에서 최지혜 전도사를 강사로 교육이 진행된다. 또 각 부서의 연중 교육 과정 소개와 자녀들에게 가르칠 찬양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유아부는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며 기도의 후원과 협력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유아부 담당 조대영 전도사는 “이번 세미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 일정 중 마

련되어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 와서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부서의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했다.

2월 학습·세례식

2월 학습·세례식이 23일(수) I·II부 예배시 거행된다.

13일과 오늘 실시한 학습·세례자를 위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는 21일(월) 오후 7시 301호실에서 실시하는 추가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문답은 22일(화) 오후 7시에 있다.

앞집, 뒷집, 옆집, 윗집, 아랫집, 어느 쪽을 둘러봐도 문 열고 들어가 “교회 갑시다”라고 말해볼 형편이 안되는 분은 안계시는지요? 오늘부터라도 이웃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웃을 서로가 사촌이라 부를 만큼 친근감있고 서로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심 갖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 온 동네가 이웃처럼 울고 웃으며 지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이웃이 사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대소사 때마다 꼭 나누는 ‘떡’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겨울철 일손을 놓고 사랑방에 모여서 뜨개질하시던 어머니들은 수시로 한 움큼씩 쌀과 팥을 모아다가 모듬떡을 만들어 먹으며 떨어지지 않을 끈끈한 정을 나누었고, 집안 어르신 생신이나 혹은 명절 때라도 되면 어김없이 우리들은 우그리진 커다란 양철 쟁반에다 인절미를 집집마다 식구 수에 비례해서 몇 개씩을 얹고서는 온 동네에 나르느라 고무신이 꽤나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떡을 갖다 드리면 “아이고 안그래도 되는 데...” 하시면서 정감 넘치는 표정으로 받으시

는 옆집 아줌마, 그리고는 반드시 빈 접시에 는 뒤주 속에 넣어 두었던 귀넛 접대용 홍시 한 개, 하다못해 먹다 남은 엿이라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떡 때문에 우리의 이웃은 사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2월 테마전도주일 - 옆집 사람 모셔오기

“웬 떡이에요?”

이규정(목사, 전도위원회 지도)

- 이번 주에 하루도 빠짐없이 꼭 해야 할 일 : 대상자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기
- 월: 떡해 가지고 찾아가기
- 화: 자녀 학용품 사주기
- 수: 안부전화 하기
- 목: 초청하여 차 마시기
- 금: 한끼 금식 기도하기
- 토: 전화로 꼭 확인하기
- 주일: 정중하게 모셔오기.

또한 떡을 나누는 교제는 성경적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에도 떡이 있었습니

다. 처음 주님을 만나 그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었던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2:42)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행 2:46) 믿음의 교제를 더욱 뜨겁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행 2:47)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를 주시고도 못 바팔 이웃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진실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저들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떡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쯤 따끈 따끈한 떡을 해서, 앞집 철이네, 뒷집 할아버지, 옆집 길수네, 윗집 대훈이네, 아랫집 광식이네 집에다 돌려봅시다.

그러면 모두가 눈이 동그래져서 “누가 합격했나요? 무슨 떡이에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시다.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떡 좀 했어요!”

한주간 남은 2월 테마전도주일(앞, 뒷집, 옆집, 위(아래)집 사람 모셔오기)을 위해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천해 봅시다.

이사야 강해

앗수르의 화

이사야 33장 1 - 6절

유다 백성들에게 앗수르의 압박은 계속 되었습니다. 앗수르 왕은 유다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고 히스기야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은과 성전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겼습니다(왕상 18:15 - 16). 그러나 그것으로 산헤립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랍사게를 시켜 예루살렘으로 진격토록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앗수르가 받을 멸망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난국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기회를 갖게 되셨습니다. 결국 앗수르의 멸망은 시작되고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1. 화 있을진저 앗수르여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란 앗수르를 가리킵니다. 또한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 역시 앗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다를 도와 줄 것을 약속하고서도(왕상 18:14 - 15) 계속 침략을 했으므로 속이는 자입니다.

앗수르는 유다를 학대하며 속이는 일을 그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나라도 패할 날이 올 터인데 그 때에는 그 나라 임금 자신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1) 악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에는 죄 뿐 아니라 죄를 향하는 악한 자에게 직접 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시 7:11, 롬 2:8, 9).

(2) 이 죄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응보는 범죄한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1절). 예수님께서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희가 해야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짓는 죄의 값을 우리 혹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갚으십니다. 앗시리아는 약탈자의 상징입니다. 주전 700년 경에 산헤립과 그의 군사는 침략과 약탈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을 약탈

하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약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칼로써 망하는 법입니다. 앗시리아의 운명도 메데와 바빌론의 강력한 세력 앞에서 몰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기도와 신뢰의 자세

선지자는 유대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2절). 이것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들어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중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은 네 보배니라”(사 33:1 - 6)



이종운 목사

확신의 자세이며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나 실은 매우 강력한 자세입니다.

‘아침마다’는 계속적인 뜻이고 ‘팔’은 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와 팔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선지자는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요란한 소리’(3절)는 앗수르에 대하여 하나님의 꾸짖으시는 소리이며 ‘주께서 일어나신다’ 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앗수르를 물리치시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신다는 뜻입니다. ‘민족들, 나라들’이란 앗수르 침략군 아래 있는 앗수르의 모든 식민지 백성을 말합니다.

‘메뚜기가 뛰어들어 같이’(4절)는 앗수르군이 내버리고 간 노략물을 유대인들이 회수하기 위해 황충때 같이 모일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이 같이 그 성취를 확신했습니다.

3. 유다를 구원하실 여호와와 속성

(1)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높아지셨습니다(5절).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벌하고 정의와 공의를 충만케 하심으로 그의 선민으로 하여금 더욱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멸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

이 높음을 받으셨습니다(출 15:1 - 20). 하나님께서는 전쟁뿐 아니라 사탄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2)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하나님

구원은 외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는 결국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

습니다. 지혜는 내적이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잠 1:7). 또한 지식은 지혜로 인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아 외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높임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최대 보화는 종교정신입니다. 유대는 앗수르군에 의해 금과 은을 약탈당했습니다. 잔인한 앗수르 왕은 성전 창고를 폐허로 만들었고 포도밭을 유린했으며 들에는 씨를 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왕하 19:19).

그러나 유대에는 가장 귀한 재화가 있었으니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이었습니다(6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유다는 옳은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급할 때 군대를 모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심을 믿고 변함 없이 보호해 주심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보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 보화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필그림찬양대 수련회를 마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박승현(필그림찬양대원)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

아직도 내 입가엔 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 2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가진 찬양사역자 수련회에서의 시간들이 아직도 머리 속에 생생하기만 하다.

필그림찬양대원인 박민서, 광정임, 최유현, 이승준, 이강욱, 김성주, 전신일 그리고 나는 좀 부담이 되고 어색하기도 한 찬양사역자란 이름으로 수련회에 참석했다.

훈련과정은 매우 힘들었다. 아침 저녁으로 3-4시간 이상 서서 찬양과 기도를 반복했고 낮에는 계속 강의를 들어야 했다. 처음엔 비교적 보수적이고 잔잔한 우리 교회 분위기와는 달리 많이 열정적인 분위기에 적응이 잘 안되고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체감하게 되었다. 각자에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로 임하셨다. 우리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며 우리 필그림찬양대가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에 대해 그 말씀들에 근거해 정리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수련회가 주로 찬양으로 진행되었고 말씀도 찬양에 집중되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우리 교회에서 듣던 말씀이 너무 그리웠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원 모두에게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심령을 가르쳐 주신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에게 원하시는 걸 알았고 그곳에서의 깨달은 것들을 하

나씩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려 한다. 서울교회 안에서의 찬양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그로 인한 영혼의 회복까지를 소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그리워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큰 은혜와 가르침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의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린다.

편지였습니다

새 예배당 얼마나 올라갔는지요?

전금련(중국 연길시)

제가 처음 주님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 받게 인도해 주신 잊을 수 없는 서울교회 성도들께 문안드립니다. 서울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던 것이 필름처럼 머리를 스치며 늘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육신이 피곤치 않게 해 주실 것과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감동 감화시켜 주시사 주님을 영접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또 저는 이곳에서 서울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7대 기도제목을 놓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현재 서울교회 새 예배당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새 예배당이 완성되고 현당에 배를 드리게 될 때 저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십자가 사건을 알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교회생활을 통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올해 이곳 교회에서 권찰로 임명을 받고 예배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저녁에 만나는 한가족

조춘택(집사, 반포4다락방장)

우리 반포 2·4다락방은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다락방 식구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운진 지역장 인도로 예배를 드린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모이기 어려운 다락방이었지만 지역장의 열의로 현재는 10명 이상이 모이는 다락방이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헌신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바깥

일 한다는 핑계로 주일 아니면 교회 봉사를 피해온 나에게 줄지에 다락방장의 직분을 맡게 하시고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지역장님께 감사

를 드린다. 직업인으로서, 주부로서 항상 바쁜 중에도 많은 구역 식구들을 전화로 혹은 직접 심방하시고 토요일 오후 7시면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락방 식구들을 태워 주시고 다락방 예배가 끝나면 다시 교회 앞까지 태워다 주시며 매주 새로운 메뉴로 다락방 식구들의 입을 즐겁게 해 주신다.

일 한다는 핑계로 주일 아니면 교회 봉사를 피해온 나에게 줄지에 다락방장의 직분을 맡게 하시고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지역장님께 감사

를 드린다. 직업인으로서, 주부로서 항상 바쁜 중에도 많은 구역 식구들을 전화로 혹은 직접 심방하시고 토요일 오후 7시면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락방 식구들을 태워 주시고 다락방 예배가 끝나면 다시 교회 앞까지 태워다 주시며 매주 새로운 메뉴로 다락방 식구들의 입을 즐겁게 해 주신다.

이렇듯 매주 화기에애한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만이 나눌 수 있는 영적 교제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참석치 못한 다락방 식구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있다.

이 아름다운 영적 교제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반포2·4다락방 식구들은 윤복순 집사(☎ 547-8497)나 조춘택 집사(☎ 595-4336)에게로 연락바랍니다.

■ 대학부수련회를 마치고 ■

내가 발견한 새 소망 몇가지

하인구(대학부)

새로운 소망과 그 정립... 내게 이번 수련회는 두 번째다. 작년 겨울수련회에서는 진정한 눈물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꼈었다. 그러기에 "젊은이여 소망을 위해 준비하라"는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보고 나의 소망에 대해 생각해 봤다. 소망... 그것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리라.

삶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삶을 사랑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사이클이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의미를 잃게 된다.

소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처해 있는 상황마다 늘 바뀐다. 그러나 성취에 상관없이 늘 무엇인가 부족해 일평생 소망의 갈증 속에 산다면...?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다. 내게 부여된 이번 수련회의 과제였다.

첫째날 목사님의 설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쓰임 받기 위해선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은 뭔가 준비하다 쉽게 싫증내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변명하기 바빴던 내게 큰 의

미를 던졌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실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을 첫번째 소망으로 정했다. 항상 최선을 다하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봐어도" 라는 게임을 통해서도 많은 감명을 느꼈다. 이 2인3각 보물찾기 게임은 상대와의 호흡이 중요한 열쇠였다.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둘째날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한 형제가 경건하게 기도드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날 등그렇게 둘러앉아 오른편 지체에게 빵과 우유를 떼어주며 기도제목을 듣고 위해 기도해 주는 순서가 있었다. 서로 어려운 짐을 털어놓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여기서 내 소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정했다.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던 자신을 반성했다.

마지막 셋째날이 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련회 기간 동안 서로 느꼈던 짐을 나누었

던 롤링페이퍼 시간이었다. 대학부 모든 지체들로부터 내 모습이 평가받는 시간이었다.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면서 나의 장단점을 알게 해 준 지체들에게 너무 고맙았다.

내 세속적인 소망을 주님을 위한 소망으로 바꿔 주었던 2000년 대학부 수련회. 그곳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우리 곁에 하나님이 모든 일정 동안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곁에서 언제나 사랑의 미소를 띠신 채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 수련회를 통해 나의 소망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남들보다 많은 시간 노력하신 임원단과 목사님과 선생님들, 온전히 입에서 나오는 것을 주님께 영광돌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필그림찬양대, 모든 일정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오정수	한정근 김태순 문기석 박영순 박무서 김연순 장두영
하영수	최병호 안중예 최병권 문금복
이완형	최인원 박기수 박종태 임동춘 이우금
박연순	윤무용
박청강	황선철

100교회운동 결연현황

2월 13일 현재(다음호에 계속)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98	목왕교회	김기영(목)	이보우 · 서옥덕
99	신월교회	안군기(목)	최학인 · 최소희
100	동수교회	신형수(목)	우유명 · 김윤자

▼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남은 일정

부서	실시일	장소	주제
유치부	2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유년부	2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초등부	2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중등부	2월 24일(목) - 25일(금)	교회당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등부	2월 21일(월) - 22일(화)	교회당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청년부	2월 28일(월) - 3월 1일(수)	동신기도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사랑부	2월 25일(금)	교회당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

- * 김성규 집사 · 문혜진 성도(11교구)는 7일(월) 득녀했다.
- * 민헌기 성도(10교구, 전수자 권사 아들)는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이번생 장로 · 박경희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안드레선교회는 21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이사 ■ * 조철기 · 김영란 성도, 목동으로(☎ 635 - 6911)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의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를 위해
2. 태신자와 새가족을 위해
3.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의

구	부	시	간
주 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새벽 5시30분

† 교회약도

